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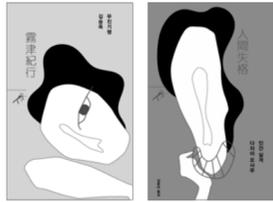
# 동네책방서만 만나니 더 특별한 책

민음사 '쏟살문고 에디션'

김승욱 '무진기행' 등 2권

2000부씩 한정 발행

출판사와 협업 물꼬



무진기행

인간실격

인터넷이나 대형서점에서는 살 수 없지만 동네서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책이 발견돼 눈길을 끈다.

국내 최초로 동네책방 한정 판매용으로 판매되는 특별한 책이 나왔다. 민음사는 기존 '세계문학전집'에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김승욱의 '무진기행'과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두 권을 특별판으로 제작해 전국 동네 서점 130여 곳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책은 최근 '쏟살문고 동네서점 에디션'으로 각각 2000부 한정 발행했으며 문고본 판형이다. 표지 디자인도 새롭게 편집돼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준다. 두 작품집은 각각 "현대 도시민의 고독과 불안, 살아남은 자의 우울과 부끄러움을 포착한 걸작 단편집"('무진기행'), "일본 데카당스 문학의 금자탑, 모든 청춘의 통과 의례가 돼버린 작품"('인간실격')이라는

평을 받은 고전이다.

이번 이벤트는 민음사와 동네서점이 제휴해 공동으로 펼친 일명 '쏟살문고 동네서점 프로젝트'. '쏟살문고'라는 이름은 "세계를 향해 지식을 쏜다"는 의미로, 민음사 로고에 나오는 활 쏘는 사람에서 따왔다. 민음사 관계자는 '쏟살문고 동네서점 프로젝트'는 "독자들이 동네서점에 가야 할 이유와 계기를 제공하려는 시도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판매하는 '디자인 특별판'은 여러 출판사에서 시도된 적이 많았다. 동네 서점에서만 판매되는 책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책방의 운영 방식과 지역적으로도 다른 동네 서점들이 통일된 기획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쏟살문고 에디션』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 광주: 검은책방 흰책방, 동네책방 숲, 공백
- 전남: 심다(순천)

사실 지금까지 동네 서점을 살리자는 말만 많았지, 출판계의 독자 이벤트는 대부분 대형 체인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중심으로 진행돼 오히려 동네 서점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광주의 '검은책방 흰책방', '동네책방 숲', '공백'과 순천의 '심다'가 참여했다. 또한 군산의 '한길문고' 청주의 '책이있는글터' 등 전국 방방곡곡의 독립 서점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쏟살문고 동네서점 프로젝트'는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의 아이디어가 계기가 됐다. 장 대표는 "그동안 동네 서점을 살리자는 대의는 어느 정도 자리잡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

는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출판마케팅 기획이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바꾸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동네서점들의 참여가 빠르게 이뤄졌다"며 "대규모 마케팅으로 발견되지 않는 책을 발굴해 독자들에게 선을 보이는 데 동네서점만한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동네서점은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출판사와 동네 서점 간의 '특별한' 협업이 더 자주 일어남으로써, 동네 서점의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 수완지구 '동네책방 숲'을 운영하고 있는 안석 대표는 "동네서점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한 권의 책에서 저자의 삶을 나누고 싶어 한다"며 "민음사와 함께 하는 이번 프로젝트로 동네서점이 지역민들의 문화사랑방의 구심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민음사와 동네서점간의 프로젝트는 특별한 일이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책을 사랑하는 이들은 여름휴가를 먼 곳이 아닌 동네서점으로 갈 지도 모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율성음악축제 '2017 광주성악콩쿠르'가 지난 5일 빛고을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예선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 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개막

본선 26일 빛고을시민회관

대한민국 음악계를 이끌 차세대 젊은 성악가를 찾는 정율성음악축제 '2017 광주성악콩쿠르'(이하 광주성악콩쿠르)가 지난 5일 빛고을시민회관 공연장에서 남성 부문 1차 예선을 시작으로 열띤 경연의 막이 올랐다.

'광주성악콩쿠르'는 정율성 선생의 음악과 예술혼을 널리 알리고 성악을 통한 국제문화 교류와 실력 있는 성악 분야 신인 발굴을 위해 광주문화재단이 2012년부터 정율성음악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1996년부터 지역 성악인을 주축로 간헐적으로 개최됐던 국제성악콩쿠르의 맥을 이어

올해 10회째 개최되면서 참가자들의 역량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선은 오는 26일 빛고을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며 상금은 1등 1500만원, 2등 1000만원, 3등 500만원, 그리고 특별상을 포함하여 총 3700만원이 수여된다. 최고입상자에게는 '정율성음악축제' 공연 시 협연 기회가 주어지고, 정율성기공상 수상자에게는 광주음악협회 주관 '광주음악제' 출연 혜택이 주어진다. 본선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10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공개 발표회로 진행된 다. 문의 062-670-746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시민인문학 8월 새 강좌 다채

9월 3일까지 카페 '노블'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8월 들어 새 강좌를 개설한다. 오는 7일부터 9월 3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개최되는 46기 강좌는 문학, 철학, 클래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 참여 위주로 진행된다.

정규강좌는 월·목·토요일(오후 2시) 강좌와 월·화·수·목요일(오후 7시 30분) 강좌로 나뉘어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안철 음악해설가의 '일상에 클래식 선율을-건강한 여름을 위한 영성음악 II'(오후 2시)와 김청우 박사의 '언어는 곧 삶이다-시적 상상력'(오후 7시 30분)이 열린다.

화요일(오후 7시 30분)에는 '시 창작, 이론에서 실기까지' 주제로 김청우 박사의 강연이 이어진다.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인문사회융합 시간으로 명혜영 교수가 '몸의 철학, 메를로 폰티 '지각의 현상학'을 토대로 강독과 토론이 진행된다.

목요일에는 각각 '무라카미 하루키 신작 '기사단장 죽이기' 강독(오후 2시)과 위상복 교수의 '노교수의 철학 강의-맑스와 자본'(오후 7시 30분)이 이어진다. 토요일(오후 2시)에는 영화 덕후 시간으로 '동남아권 영화 특별전'이 예정돼 있다.

토요일 특별강좌는 명혜영 교수의 '일본어로 읽는 인문학-철학용어도 감, 소설 독해'(오전 11시)와 '시시(詩詩)한 백일장-전남대 용지 돌래길'(오후 2시)이 진행된다.

회원제 강좌별 등록해야 하며 참가비는 별도다.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해리포터' 조앤 K 롤링

연간 1069억 최고 소득 작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조앤 K 롤링(사진)이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작가로 알려졌다.

조앤 K 롤링이 6월 미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집계한 '2017년 세계 최고 소득 작가' 순위에서 연간 9500만 달러(약 1069억 원)를 벌어들여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 소득보다 7600만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롤링은 1분당 평균 180달러를 번 셈이다.

롤링은 지난해 순위에서는 3위에 그쳤으나 9년 만에 퍼낸 복귀작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가 세계 각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역시 롤링"이라는 이름값을 증명했다.

지난 수년간 수위를 지켰던 스티븐 소설의 대가 제임스 패터슨은 8700만 달러로 2위에 머물렀다. 3위는 어린이 소설 '원피 카드' 작가인 제프 키니(2100만 달러), 4위는 '다빈치 코드'로 유명한 댄 브라운(2000만 달러)이 차지했다. 5위는 1500만 달러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킹이 올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진행된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오픈스튜디오 행사.

##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오늘 스튜디오 공개

입주 작가 작품 전시

광주 남구 양림동의 레지던스 창작공간 '호랑가시나무 창작소'가 7일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갖는다.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는 근대화후적인 우월순 선교사 사택 아래에 위치한 원만한 사택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원만한 사택은 1950년대에 건축돼 1998년까지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선교

사들이 한국을 떠난 후에는 한때 호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아트주(대표 정현기)는 수년 동안 빈 채로 유지되던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2014년 4월 일명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를 개소했다.

현재 레지던스에서는 미디어엑스(신도원 & 펄크파마)와 영화감독 김희정을 비롯해, 조현택, 김승택, 양나희 작가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해외초청작가로는 프랑스의 사진작가 올리비에 트릴롱과 대만 큐레이터 에리카 황이 입주해 있다.

이번 오픈스튜디오 행사는 짧게나마 작가들의 작업실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창작소 로비, 지하 전시관, 그리고 올해 초에 오픈한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입주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 일부를 전시한다. 문의 070-4240-09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가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와 규 전문점 참숯가마 돼지갈비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09시 오픈! 22시 마감!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참숯가마 전문점입니다. 그리고 최신도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한우가격의 2/3**

와규 갈비살 20,000원  
와규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와규전문점
-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